

「說文 解字翼徵」研究

A Study of the Sulmunhaejajking

金 順 姬 (Soon-Hee Kim)*

目 次

- | | |
|---------------------|-------------------------|
| 1. 緒 論 | 4.2.2 構成 |
| 1.1 研究의 目的 및 意義 | 4.2.3 文字解說 方式 |
| 2. 著者 朴瑄壽의 生涯와 學問 | 5. 清代 主要 說文學 著述과의 比較 |
| 2.1 生涯 | 5.1 段玉裁의 「說文解字注」 |
| 2.2 學問 | 5.1.1 「說文解字注」의 構成 |
| 3. 「說文解字翼徵」의 著作 背景 | 5.1.2 「說文解字注」의 文字解說 方式 |
| 3.1 著作動機 및 姿勢 | 5.1.3 「說文解字翼徵」과 「說文解字注」 |
| 3.2 著作時期 | 5.2 吳大澂의 「說文古籀補」 |
| 4. 「說文解字翼徵」의 體裁와 構成 | 5.2.1 「說文古籀補」의 構成 |
| 4.1 形態書誌學的 檢討 | 5.2.2 「說文古籀補」의 文字解說 方式 |
| 4.2 體裁와 構成 | 5.2.3 「說文解字翼徵」과 「說文古籀補」 |
| 4.2.1 體裁 | 6. 結 論 |

초 록

본 논문은 조선말의 고증학자인 朴瑄壽가 저술한 「說文解字 翼徵」에 대하여 저자 및 저작 배경, 체재와 구성 문자 해설 방식 등을 고찰하고 청조의 대표적인 설문학 저술과 비교 연구하였다.

「說文解字 翼徵」은 許慎의 「說文解字」의 오류를 수정 보완하고자 저술된 것으로 문자 해설 순서는 「說文解字」의 14卷 540部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나 고찰의 대상으로 삼은 문자에는 차이가 있다. 즉 許慎은 小篆을 대상으로 한 반면, 朴瑄壽는 소전 이전의 문자인 古代漢字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설문학 분야 저술중 가장 주목되는 殷玉裁의 「說文解字注」는 許慎의 해설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그것을 주석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므로 朴瑄壽의 문자 해설과는 차이가 보인다. 許慎과 마찬가지로 殷玉裁도 小篆이전의 古代漢字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대한자에 관하여 크게 관심을 갖고 저술된 저작으로는 吳大澂의 「說文古籀補」가 있다. 그러나 吳大澂은 「說文解字」의 해설을 수정하는데 증절을 두기 보다는 「說文解字」에서 해설한 문자 중에서 확인 가능한 고대한자들을 모두 수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므로 각각의 문자에 대하여 독자적인 해설은 미흡하다.

비록 朴瑄壽가 근거로 제시한 문자의 수는 吳大澂보다는 적지만 신빙할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깊이 연구하여 독자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해설을 전개 했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적인 면모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This dissertation evaluates the *Sulmunhaejajjing*, published in 1912, by Sun-Soo Park, an ideographic scholar of the late on Korean Chosun Dynasty. This study first explores the compilation, structure and methodology of the Chinese written characters in *Sulmunhaejajjing*. Second, it studies the *Sulmunhaejajjing*'s distinctive features by means of a comparison with some works of Sulmunhak of the Chung Period in China.

Since the motivation of writing of his work was to correct the errors of *Sulmunhaeja*, Sun-Soo Park attempted several independent interpretations. The interpretive structure of *Sulmunhaejajjing* exactly follows the 14 Books and 540 Parts of *Sulmunhaeja*, but Park's work differs in interpretation methodology and content.

Huh Shin made Sojun characters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Sun-Soo Park corrected Huh Shin's errors by making the *Pre-Sojun*, older Chinese characters the object of his investigation.

Sulmunhaejaju by Tan Ok-Jae, the most distinguished work of spoken literature in the Chung period, adopted Huh Shin's interpretation and added notes, so that Tan Ok-Jae, like Huh Shin,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Pre-Sojun* old Chinese character. Therefore, Sun-Soo Park's interpretation greatly differ from Tan Ok-Jae's.

Among the scholars of *Sulmunhak* in the Chung Dynasty, it is Oh Dae-Jing, the writer of *Sulmunhaejuba*, that accomplished the most noticeable achievement in *Sulmunhaeja*, Oh Dae-Jing aimed to collect all the Chinese characters which were confirmable in the interpretation of *Sulmunhaeja*. This, Oh Dae-Jing in a sense, neglected the independent interpretation of characters.

Sun Soo Park, however, demonstrated a pregressive character in basing his independent interpretation upon reliable resesources, even though he offered fewer character in number than did Oh Dae-Jing.

1. 緒 論

1.1 研究의 目的 및 意義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說文解字翼徵」(이하 「翼徵」이라 칭함)은 조선조 실학자인 朴瑄壽의 문자학 저술이다. 지금은 漢字가 널리 通用되지 않지만 「翼徵」이 저작되던 당시만 하더라도 漢字는 한국사회의 전반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문자였다. 漢字의 형성과 의미정착과정을 고찰하는 文字學은 中國에서 크게 발달하였는데, 조선후기에 「翼徵」과 같은 저술이 등장했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이 저서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翼徵」은 「說文解字」(이하 「說文」으로 칭함)의 오류를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집필된 저술이고 저자는 조선후기의 고증학자인 溫齋 朴瑄壽(1823-1899)이다. 그는 「說文」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說文」의 오류를 정확하게 지적해 내기도 했던 뛰어난 문자학자였다. 朴瑄壽는 「說文」이 오류를 범하게 된 이유를 許慎이 「說文」을 지으면서 古代漢字에 관심을 갖지 않고 前代의 文字인 小篆을 대상으로 하여 문자해설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古代漢字의 字形을 고찰해 보면 許慎의 불합리한 문자해설상의 오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 古代漢字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 商·周時代의 청동기 유물이며 청동기 유물에 새겨있는 古代漢字는 最古의 漢字인 甲骨文의 뒤를 이어 쓰이던 漢字로 漢字의 원시형태를 충분히 간직하고 있는 문자이다. 朴瑄壽는 이에 착안하여 이 청동기 유물에 전하

는 古代漢字를 분석하여 許慎의 「說文」이 갖고 있는 오류를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翼徵」을 저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翼徵」은 조선후기에 발달한 고증학의 영향 아래 저술된 것이다. 고증학의 한 분야인 문자학에 대한 저술이지만 중국문자학상 명저로 알려진 「說文」의 오류를 지적하고 수정한 업적이라는 사실과 그것이 조선의 학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인하여 대단히 중요한 의의가 있는 저술로 생각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朝鮮後期 文字學의 중요한 저술인 「翼徵」을 대상으로 그것의 구성과 문자해설 방식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許慎의 「說文」 및 清代 說文學派들의 주요 저술 등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翼徵」의 특성과 가치를 파악하여 그 의의를 부여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조선후기 문자학의 실상 및 당시의 학문적 수준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著者 朴瑄壽의 생애와 학문

2.1 生涯

「翼徵」의 저자인 朴瑄壽가 태어난 것은 1821(辛巳, 純祖21)년이었다. 그의 자는 溫이며 號는 溫齋이고 貫鄉은 潘南이다. 그의 家를 보면 實學의 泰斗요 大文豪인 燕巖 朴趾源이 祖父이고 父는 宗榮이며, 조선조말 문신인 朴珪壽(1807-1876)가 형이다. 朴瑄壽가 관직에 오른 것은 1864(당 44세 高宗1)년 과거급제 이후이다. 이는 그의 형인 朴珪壽가 趙大妃의 신임

을 받아 都承旨에 임명되었던 때였다. 그 후 朴瑄壽는 여러 직책을 거친 뒤 1894(당 74세)년 4월 형조판서에 보임된 것을 마지막으로 관직을 마쳤다. 그리고 「翼徵」의 저술에 몰두하다가 1899(己亥, 高宗 36)년 80세에 별세하였다.

朴瑄壽가 활약했던 시절은 조선조말의 격동기였다. 조정은 개화파와 척화파로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연이어 甲申政變과 東學革命등이 발생했다. 이러한 격동기에 그의 관직생활은 비록 40대 중반이라는 늦은 시기에 시작되었지만, 司諫院 大司憲· 暗行御史· 吏曹參議· 禮房承旨· 成均館大司成· 工曹判書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비교적 순탄했다. 당시의 복잡다단한 정치적 상황에서 이처럼 별 무리없이 정계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朴瑄壽의 인품이나 교유관계가 원만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그의 친형인 朴珪壽이다. 14세나 위인 朴珪壽는 어려서 양친을 잃은 朴瑄壽에게 있어서 부모나 다름이 없는 존재였다. 朴瑄壽는 형의 보호 아래 자라났으며 그에게서 학문까지 익혔고, 정계에 진출하였을때 형은 정치적 후견인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朴瑄壽 생애와 학문을 고찰함에 있어서 朴珪壽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朴珪壽는 어려서 부친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15세에는 이미 그의 학문이 이름날 정도였으며, 20세때 孝明世子와 교유하면서 文名을 드날렸다. 그는 祖父인 燕巖의 학문을 계승하여 실학에 전념하였으며, 1861년과 1872년에

걸쳐 두차례 中國에 使臣으로 다녀온 뒤 국제정세를 목격하면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단적으로 말하면 朴珪壽는 실학과 개화사상을 연결시킨 장본인이었고 그의 개화사상은 실학사상의 근대지향적 측면을 내재적으로 계승한 위에 외발적 요인이 작용하여 촉발된, 일찍이 北學派 學者들이 주장한 利用厚生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제2차 사신행차를 통하여 중국의 洋務運動을 목격한 뒤 귀국하여 開化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런 점으로 인해 朴珪壽는 조선후기 개화파의 정신적 지주로 추대되었으며,¹⁾ 그의 문하에서 金玉均, 朴永孝, 兪吉濬등이 배출되었다.

朴瑄壽의 生涯는 그의 형인 朴珪壽의 생애와 같은 유형의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는 朴珪壽의 제자들과 교유하며 지냈는데 특히 朴珪壽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雲養 金允植(1835-1922)과는 師弟關係를 맺어 뒤에 金允植이 「翼徵」의 序文을 쓰게 될 정도였다. 결론적으로 朴瑄壽는 조선후기의 격동하던 시대에 깊은 학문적 연원을 갖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벼슬길에 나서서는 순탄한 관직생활을 보냈으며, 사상적으로는 당시에 開化派에 속했던 인물로 평가된다.

2.2 學問

朴瑄壽의 생애나 가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는 전형적인 조선조의 儒學者이다. 보통 선비라고 통칭되는 이 집단들은 유학의 이념

1) 姜在彦. 韓國의 開化思想. 鄭昌烈 譯. 서울: 比峯出版社, 1984. p176.

을 지키며 평생을 학문에 몰두하는 특수 계층의 인물이다. 그들은 관직에 나가면 儒家의 이상인 王道政治를 이룩하려고 노력하며, 물러나면 본성을 지키고 자신의 완성을 위해 노력한 지식인들로서 근본적 자세에는 性理學者와 實學者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朴瑄壽는 이러한 선비로서의 자세를 잘 지켰던 인물로 보인다. 朴瑄壽의 학문적 경향을 보여주는 가장 큰 배경은 그의 家係이다. 祖父 朴趾源은 北學派로 분류되는 실학의 대가였다. 여기서 북학이라 함은 당시 발달했던 청대의 학문과 문화를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朴趾源은 41세 되던해 북경을 다녀온 뒤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청나라의 번창한 문물을 받아들여 낙후한 조선의 현실을 개혁하고자 했다. 이러한 학문적 전통은 그대로 家學으로 이어져 자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朴瑄壽는 역시 실학의 대가인 丁若鏞과 徐有를 私淑하였고 북학파와 개화파를 연결한 중심인물이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둘 때 朴瑄壽의 학문적 경향이 어떠한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된다. 당시 발달해 있던 淸代의 考證學이 그의 학문적 본령이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이다.

朴瑄壽가 다른 저서를 저술했다는 기록은 찾기 힘들고 「翼徵」의 체재나 내용을 볼 때 오랜 시일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그가 이 저술에 전념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朴瑄壽는 조선조 후기 고증학의 중요한 연구자 중의 한사람이며 특히 文字學에 깊은 조예를 가진 說文學者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3. 「說文解字翼徵」의 著作 背景

「翼徵」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저작 동기와 목적, 연대, 방법 등 배경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을 고찰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金允植(1835-1922)이 쓴 「說文翼徵序」이다. 金允植은 朴瑄壽의 제자로 구한말의 대표적 문장가이다. 그는 또한 朴瑄壽의 문하에서 수학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특히 문자학에 관련된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²⁾ 그는 이 序文에서 朴瑄壽가 「翼徵」을 저술하게 된 계기와 과정을 자세히 서술함은 물론 출판과정까지 수록해 놓고 있어 배경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3.1 著作動機 및 姿勢

朴瑄壽가 「翼徵」을 저술하게 된 동기는 온전히 「說文解字」에 보이는 문자해석상의 오류를 지적하고 수정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經學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에서 기인하게 되었다. 朴瑄壽가 명백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說文解字」의 체재가 엄정하지 못하고 교감이 온전하지 못하여 이를 수정하고자 이와 같은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³⁾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朴瑄壽는 전형적인 유학자였으므로 학문연구 방법에서도 유학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 그가 「說文解字」의 오류로 지적한 것 중에서 극

2) 金允植, 雲養集, 卷11 「說文翼徵序」.

3) 金晚植, 「說文解字翼徵跋文」.

력 주장한 '祖'字에 대한 논의를 보면, 祖와 같이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할 의미를 갖고 있는 글자를 어조사인 '且'와 같다고 한 許慎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祖는 마땅히 신령스러운 廟名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그의 기본적 자세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는 허다하게 있다. 朴瑄壽는 許慎같은 大學者도 오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확히 지적하여 자신의 저술 동기를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후대의 글씨를 논하는 자들이 어려운 것은 피하고 쉬운 것에 나아가 겨우 李祺만이 위로 史繼體까지 소급할 수 있었을 뿐이었으나 그 범위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또한 한유들의 학문은 그들 스승의 학설을 지켜 비록 그것의 잘못을 알려라도 감히 바로 잡지 못하였으니 이때 잘못된 것은 더욱 잘못 되었으며 불확실한 것은 더욱 불확실하게 되어 점점 그 면목을 잃은 것이 많게 되었다.⁴⁾

朴瑄壽가 이처럼 漢代 훈고학자들을 비판할 수 있는 까닭은 그들의 시대에는 한자의 조형을 추정할 수 있는 金文이 제대로 발굴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각자의 억측으로 인한 편협한 견해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의 인용은 박선수의 문자학적 안목과 깊이를 보여 준다.

대개 倉頡는 옛 성인이어서 글자를 만든 것이 지극한 이치가 간직되지 않은 것이

없다. 夏·殷·周 三代 이전에는 이어 써서 오직 삼가 근본 뜻을 잃지 않았으니 후세에 발견되는 鍾鼎을 고찰해 보면 알 수 있다.

周가 쇠약해진 뒤로 변하여 大·小篆과 隸書가 되었고 또 전하여 八分體와 楷書·草書가 되면서 날로 간단하고 쉽게만 되어 많이 본래의 뜻을 잃었으니 간혹 근사하다 고해서 섞어 쓰고, 혹은 문자를 분별하지 못해 처음의 터럭만한 차이가 나중에는 천 리만큼 어그러지게 되었다. 사주체같은 옛날 문자도 이 병환을 면치 못하였으니 하물며 그 뒤의 것은 어떻겠는가?⁵⁾

許慎의 시대에는 땅속에 묻혀있던 鍾鼎이 다 출토되지 않아서 숭상한 것이 오직 孔 壁書의 蝌蚪文字 뿐이었으므로 옛것을 수집하고 고찰하고 널리 연구한 모든 서책의 자획이나 글씨 등은 여러 연구자들이 무단하게 억측으로 정한 것이어서 잘못됨을 열고 미혹함을 이었으니 이것이 鍾鼎이 남아있는 문자가 만난 첫 번째의 액운이었다.⁶⁾

논의의 초점은 바로 鍾鼎에 맞추어진다. 朴瑄壽가 漢字의 형성과정에 대해 고찰하면서 크게 의지하고 자신이 전개한 이론의 증거로 제시한 것이 鍾鼎이다. 여기서 鍾鼎이라 함은 청동기시대의 유물을 말하는데 이 유물에 銘

4) 金允植. 前掲書.

5) 金允植. 前掲書.

6) 金允植. 前掲書.

文이 있으며 이 명문이 문자학 연구의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다. 商代의 명문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西周 이래로는 비로소 尙書와도 견줄만한 편폭이 긴 대작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鍾鼎文은 金文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유물이 종이나 솔 뿐만 아니라 祭器를 비롯하여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이다. 유물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器物의 제작자나 소유자의 氏族名이 있기도 하고, 기물의 祝辭, 제작 사유, 선조에 대한 송덕, 제사관계의 사항 등을 적은 것들도 있다. 이 金文⁷⁾의 특징은 문자로서의 기능이 높아지고 字形이 고정되었으며, 形聲字가 현저하게 늘어나고 形部의 증가로 인하여 글자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려는 의식이 강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⁸⁾ 宋代에 금석학이 발달하면서 청동기나 그 명문을 수록한 전문서적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吳大澂의 「考古圖」와 趙明誠의 「金石錄」이 있다. 朴瑄壽가 이러한 저술에 대해 직접 언급한 기록은 없으나 그가 자신의 문자학 이론을 전개시키면서 신봉했던 것이 金文이었으므로 많이 참고했으리라는 추정을 할 수 있겠다.

金文을 대하는 朴瑄壽의 자세는 매우 진지하여 안목없는 자들이 잘못 해독할 수 있음을 경계하였다.

金石에 남아있는 문자는 그 공이 심히 크지만 만약 고증하는 자가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면 金石에 남아 있는 문자의 폐해 또한 큰 것이다. 대개 글자체를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鍾鼎만한 것이 없지만

金石에 새긴 것은 오래되어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큰 안목과 자세한 心法을 갖추어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꿰뚫어 보고古今의 바른 것을 널리 종합할만한 자가 아니면 능히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¹¹⁾

이것 뿐만이 아니라 朴瑄壽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좋은 목재를 구하여 손수 鍾鼎이나 그 밖의 기물 수백여개를 만들어 거기에다 그림에 의거하여 글씨를 새겨 놓은 뒤 좌우에 벌여 놓고 그 사이에서 거거하면서 밤낮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만약 許慎의 논리중 명확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한결같이 金石으로 단정하여 같고 다름을 비교하였으며 글자를 상고하여 진위를 구별하였다.

朴瑄壽는 이러한 저작동기와 저작과정의 자세로 「翼徵」의 저술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그의 저작동기는 문자학 분야 최고의名著인 說文解字의 오류를 지적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고, 나아가 청대의 說文學派들도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던 청동기시대의 유물에 새겨진 金文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되는 바이다.

7) 李學勤. 古文字學 첫걸음 河永三 옮김.

서울: 東文選, 1991. pp. 66-67.

8) 朴瑄壽는 鍾鼎文이라고 했지만 현재 학계에서는 金文이라고 함으로 본고에서도 이를 따른다.

9) 李敦柱. 前掲書. pp. 73-75.

10) 李學勤. 前掲書. p. 60.

11) 金允植. 前掲書.

12) 金允植. 前掲書.

3.2 著作時期

「翼徵」이 저술된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자세히 전하는 기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방대한 저술이 어느 한 시기에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저작시기를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주변상황을 살펴보면 저작시기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金允植은 朴瑄壽가 저술과 연구에 몰두해 있을 때 그의 형 박규수에게 계속 자문했다고 증언하였다.¹³⁾ 박규수가 별세한 것이 1876년이니 당시 朴瑄壽가 56세 때인데 이때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것 같다. 보다 구체적으로 「翼徵」의 저작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예이다.

齊(박규수의 호)선생이 일찍이 사신으로 燕京에 갔을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說文翼徵」의 草稿를 가지고 가서 說文學에 조예가 깊은 王軒·董大燦·吳大澄에게 보여 주었더니 그들이 크게 칭송하지 않음이 없었다.¹⁴⁾

朴瑄壽가 북경에 사신으로 간 것은 1861년과 1872년 등 2차례인데 위의 인용에서 말하는 사신으로 간 것은 1872년, 즉 朴瑄壽 52세 때인 것으로 보인다. 위의 기록으로 보아 비록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철저한 고증과 정당한 이론 전개가 당시 청대의 설문학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다. 그후로 계속 정진하여 晩년에 「翼徵」 全14권을 완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⁵⁾ 따라서 이 「翼徵」은 고

증학의 영향을 받은 조선의 유학자 朴瑄壽가 젊은 시절에 착수한 이래 평생의 노력을 바쳐 완성한 저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결국 이 저서의 저작시기는 朴瑄壽의 일생에 걸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3.3 出版

당시의 불완전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 때문인지 몰라도 朴瑄壽가 생존해 있을 때에 「翼徵」은 출간되지 못하였다. 「翼徵」의 출간이 시도된 것은 그의 별세 12년 뒤인 1911(辛亥)년이었다. 주로 그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처럼 의의있는 저술을 死藏시킬수 없다고 의논하여 출간을 결정한 뒤 金允植이 序文을 쓰기로 하였다.¹⁶⁾ 그러나 실제 출간이 된 것은 다음해인 1912년이었다. 이때는 이미 한일합방 뒤였는데 당시의 寺內總督이 出資하여 출간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¹⁷⁾ 인쇄처는 崔南善이 운영하던 光文社였다.

3.4 校閱者 金晩植

「翼徵」과 같은 방대한 저술이 한사람의 작업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연구에 도움이 될만한 학문적 안목을 갖고 오랜 세월을 같이 지내며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13) 金允植. 前掲書.

14) 金允植. 前掲書.

15) 金允植. 前掲書.

16) 金允植. 前掲書.

17) 金允植. 前掲書.

갖추고 있는 助力者가 필요한데 「翼徵」의 경우 이런 조건에 부합하고 실제로 朴瑄壽를 도와 저술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인물이 金晩植(1834-1900)이다. 그의 字는 器卿이고 호는 翠堂이며 본관은 淸風으로 金允植이 그의 從弟이다. 김만식이 「翼徵」의 저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 이유는 朴瑄壽가 그의 外堂叔이었기 때문이었다. 김만식은 1869년 과거급제후 평안도 관찰사까지 지냈으며 1883년 10월 〈漢城旬報〉를 창간하기도 한 개화파의 일원이었다. 김만식은 朴瑄壽가 「翼徵」을 저술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직접 校閱에 참여하는 등 깊이 관련되어 있다. 「翼徵」의 각 권 첫머리에는 ‘潘南朴瑄壽溫卿治’·‘淸風金晩植器卿習’이라고 명기되어 있어 김만식이 교열자였음을 확인시키고 있다.

「翼徵」은 書眉에 註가 달려 있는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 註의 내용을 정리한 사람이 金晩植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무릇 이와 같은 것(許慎이 잘못 해석한 文字)들이 한 번 외삼촌의 손에 들어가면 추락한 것들이 회복되고 거저이 바르게 되며, 떨어지고 끊어진 것들이 이어지고 불분명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 만물을 이에 볼 수 있는 혼쾌함이 있으니, 六書의 학문이 있는 이래로 이러한 것이 있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 형제가 즐겨 註評하게 된 까닭이며 감히 사양하지 못한다고 말할 뿐이다.¹⁸⁾

여기서 김만식이 형제라고 말한 것은 자신과 그의 從弟 金允植을 말한다. 이 인용에는 朴瑄壽의 학문적 성취에 대한 조력자로서의 자부심이 드러나 있고 자신들이 도와 이 저서가 이루어졌음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결국 翼徵이라는 저술은 朴瑄壽의 끝없는 노력과 연구의 결실이며 동시에 김만식 같은 안목있는 助力者의 오랜 세월에 걸친 도움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說文解字翼徵」의 體裁와 構成

4.1 形態書誌學的 檢討

「翼徵」은 14卷 6冊으로 되어 있다. 서지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판식은 四周單邊으로 되어 있고 半葉이 21.6×15cm이다. 그리고 無界이며 半葉에 11行 22字씩 배열되어 있고 註는 書眉에 쓰여 있다. 전체 크기는 30.6×18.3cm이다. 이 책은 원래 필사본이었는데,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김만식이 자필로 필사한 것으로 보이며 출판하면서 石印本으로 간행하였다.

「翼徵」의 특징 중의 하나는 序와 맨 뒤의 附記만 있고 目次나 다른 보조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金允植은 1911년 서문을 쓰고 난 뒤 실제로 출간된 1912년에 다시 부록을 덧붙여 놓았다. 跋文格인 後記는 金允植과 김만식이 각각 적었다.

18) 金允植. 前掲書.

4.2 體裁와 構成

4.2.1 體裁

「翼徵」의 體裁는 전적으로 「說文解字」의 체재와 동일하다. 「說文解字」는 모두 14권으로 되어 있는데 각권에서 설명한 부수와 문자는 동일하지 않다. 첫 번째 부수인 '一'에서 마지막 540번째 부수인 '亥'까지 적절하게 14권으로 배분하여 해설한 說文解字의 체재를 翼徵도 답습하였다. 참고로 각 권별 해설부수의 배분을 보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표 1〉 「翼徵」의 각권별 부수배정표

권수	해설부수
1	14
2	30
3	53
4	45
5	63
6	25
7	56
8	37
9	46
10	40
11	21
12	36
13	23
14	51
총	540

4.2.2 構成

「翼徵」의 구성방식은 먼저 「說文解字」의 문

자배열 순서에 따라 문자를 배열한 뒤 許慎의 해설문을 그대로 인용해 놓았다. 그리고는 자신이 鍾鼎에서 발견한 金文을 적어 놓았으니 이것이 곧 '徵' 하는 것이다. 이 徵字 밑에는 鍾鼎遺物의 명칭을 명기해 놓았는데, 예를 들면 '號叔鍾' · '毛公鼎' · '調楚石' · '陳侯甬' 등으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문자 해석상의 신빙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元'자와 같이 金文中에서 너무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경우는 일일이 유물명을 써 놓지 않았다.

許慎의 문자해석에 대해 異見이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金문을 그려 넣음으로써 동조하였으나 許慎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동그라미 두 개를 상하로 적고(：)그 밑에 자신의 견해를 개진시켜 놓았다. 해설문에는 작은 동그라미나 점으로 批點이 찍혀 있고 더욱 중요한 것에는 옆에 두줄이 그어져 있다. 朴瑄壽는 유물에서 발견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許慎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정확한 문자해석을 시도함으로써 그야말로 說文解字의 오류를 수정, 보완하였던 것이다. 許慎의 저서에서는 등장하지만 金文中에서 발견할 수 없는 부수와 문자는 許慎의 해석을 그대로 전제해 놓았다. 대표적인 예로 '齒'자를 들 수 있는데 說文解字의 설명을 수록해 놓은 뒤, 「說文解字」에서는 이 '齒'자 부수에 속해 있는 46자를 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鍾鼎에 보이지 않음(不見鍾鼎)'이라고만 간단하게 언급하고는 더 이상의 설명을 붙이지 않았다. 이것은 金문을 기준으로 문자해석을 시도하는 입장에서 金文中에서 발견할 수 없는 문자들에 대해 불확실한 추정을 삼가기 위한 철저한 연구자세에

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물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변의 자료와 유사한 문자에서 분명히 확인 할수 있는 문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견해를 밝혀 놓았다.

4.2.3 文字解說 方式

그러면 「翼徵」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문자를 해설했는지 그 실례를 들어 살펴보겠다. 여기서는 '天'字를 예로 든다. 朴瑄壽가 天字의 徵字로 제시한 금문은 𠄎, 𠄏, 𠄐, 𠄑 등이며 많은 유물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다. 許愼이 해석한 天의 의미와 형성은 〈顛也, 至高無上, 從一大 他前切〉이었다. 즉 許愼은 一과 大가 결합하여 天이 되었다고 했으나 朴瑄壽는 이와 다르다. 朴瑄壽는 금문에 의거 '大'와 '宀'를 구분하였던 것이다. 金文에 '大'라고 쓴 것은 大命, 大事, 大夫 등에서 사용되었으니 이는 크고 적다는 것의 大이고, '宀'는 大廟·大室·大保·大祝 등에서 쓰였으니 '매우 심하다'라는 뜻의 太인 것이니 구분되어야 마땅하다.¹⁹⁾ 라고 다른 견해를 제시했던 것이다. 朴瑄壽는 이어 大와 太는 고대에 크게 버티는 것은 宀라고 쓰고 솟아 있는 것은 宀이라고 써서 구별하였는데 少篆에서 宀을 宀으로 고쳐쓴 것은 今文에서 大라고 하여 古文을 고친 것이니 그 해설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宀의 뜻은 지극히 커서 더할 것이 없는 것이므로 '甚'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니 '天'字가 宀에서 유래되었음은 해설을 기다리지 않아도 명백하다고 보충했다.²⁰⁾ 여기에 다시 金文을 인용하여 증명하였는데, 周代 후기의 유물에 '天'字가 비록

一을 따르기도 하였으나 그것이 宀를 따른 것이지 宀를 따르지 않은 것은 스스로 확실하다고 주장하였다. 小篆에는 宀을 고쳐 宀이라고 했으니 그러므로 小篆에서 天을 간혹 宀이라 쓰기도 하니 또한 곧 太를 따른 것이다 라는 점도 부기하였다.²¹⁾ 天字에 대한 해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朴瑄壽가 天을 字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文으로 인정한 사실이다. 이는 許愼이 天이 一이라는 文에 속하는 字였다고 설명한 것과는 정반대의 주장이다. 文은 원시구조의 初文이므로 宀 또는 그 이상의 독립성분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獨體의 單字이며, 字는 初文의 배합으로 생성된 것으로 宀 또는 그 이상의 文으로 분석이 가능한 合體인 것이다.²²⁾ 이것은 許愼도 자신이 쓴 「說文解字原序」에서 밝혀놓은 것이었다.²³⁾ 따라서 天을 각각 文과 字로 구별하는 許愼과 朴瑄壽의 관점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朴瑄壽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

처음부터 運圓함을 따른 것이지 一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運圓은 會意이지 文이 아니니 天은 의탁할 부수가 없으므로 스스로 文이 되는 것이다.…… 또한 여러 증거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만물의 아버지로서 文이 되지 않고 字가 된단 말인가?²⁴⁾

19) 朴瑄壽, 說文解字翼徵, 卷1.

20) 朴瑄壽, 說文解字翼徵, 卷1.

21) 朴瑄壽, 說文解字翼徵, 卷1.

22) 李敦柱, 漢字學總論, 卷1, pp.108-109.

23) 許愼, 「說文解字原序」.

24) 朴瑄壽, 說文解字翼徵, 卷1.

朴瑄壽는 위의 설명에서 보듯이 두가지의 기본적 방식, 즉 청동기시대 유물에 새겨져 있는 금문에 의한 고증, 그리고 전형적인 유학자적 사유체계에 의한 문자해설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위의 해석에서 볼수 있듯이 天은 만물의 아버지와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는 소중한 글자인데 이것이 文이 아니고 字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5. 清代 주요 說文學 著述과의 比較

清代 문자학의 분야는 古韻學, 古聲學, 切韻學 등의 聲韻學과 說文學으로 나뉘어진다. 문자학 분야에서 「說文」이 차지하고 있는 의의가 지대하므로 이를 텍스트로 하여 연구를 진행시킨 업적이 계속 이어졌다. 대표적인 예로 唐代에 李陽冰이 「刊定說文解字」를 저술하였고 宋나라때 徐鉉이 「校定說文解字」를 간행하였으며 南唐代에 徐鉉가 「說文繫傳」를 저술함으로써 면면이 이어져 오다가 清代의 乾嘉時代에 이르러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시대에 「說文」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註釋하거나 許慎의 文字解說 理論을 발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약 250여종, 논자에 따라서는 500여종까지 이른다고 한다.²⁵⁾ 이것은 그만큼 乾嘉時代에 說文學이 성행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많은 저술중에서 殷玉裁(1735-1815)의 「說文解字注」, 桂馥(1736-1805)의 「說文解字義證」, 王筠(1784-1854)의 「說文釋例」·「說文句讀」, 朱駿聲(1788-1858)의 「說文通訓定聲」 등이 대표적 저술로 손꼽힌다. 이들을 說文四大

家라고 명명하며 이들의 저술이 許慎의 「說文」을 가장 정확하게 주석하고 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翼徵」의 문자해석방식을 검토하기 위하여 비교대상으로 청대 설문학파의 저술중에서 段玉裁의 「說文解字注」와 吳大澂의 「說文古籀補」를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 段玉裁의 「說文解字注」를 선정한 이유는 이 저술이 청대 설문학파의 흥기를 자극한 중요한 저술이기 때문이다. 사실 許慎의 「說文」이 文字學의 典範으로 취급되기 시작한 것도 이 저술의 출현으로부터 였으니, 「說文解字注」의 의의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段玉裁의 문자해설방식이 잘 나타나 있어 여러모로 비교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說文學에서의 남은 저술 중에서 吳大澂의 「說文古籀補」(이하 「古補」로 약칭)를 「翼徵」과의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이 「古補」는 書名에서도 알 수 있듯이 「說文」에 해설된 문자들의 古文을 제시함으로써 許慎의 해설을 보충하기도 하며 새로운 해설을 시도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런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翼徵」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古補」의 저자인 吳大澂은 1835년에 태어나 1902년에 별세하였으니 그가 활약한 시대가 朴瑄壽(1823-1899)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때는 段玉裁 보다 100여년 늦은 시기로 문자학 방면에서는 많은 업적이 이루어

25) 林 尹. 訓詁學概要.

진 때이므로 이 시기에 대표적 연구와 「翼徵」을 비교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셋째 金允植의 「說文翼徵序」에 의하면 朴瑄壽가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아직 완성되지 않은 「翼徵」의 草稿를 가지고 가서 당대에 이름있는 說文學者들에게 보여 주었는데²⁶⁾ 이때 吳大澄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朴瑄壽의 중국행차는 1861년과 1872년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주변 사정을 고려해 볼때 위의 사실은 1872년의 사신 길에 일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翼徵」의 草稿를 같이 본 사람들은 吳大澄과 王軒, 董文燦 등이었다. 이때 吳大澄은 37세 가량이었을 때이므로 한창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을 때였을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고대의 金文을 기준으로 許慎의 오류를 수정하는 朴瑄壽는 37세 가량이었을 때이므로 한창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을 때였을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고대의 金文을 기준으로 許慎의 오류를 수정하는 朴瑄壽의 방식은 많은 자극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여러 학자들은 모두 說文學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었다. 크게 칭찬하여 말하기를 ‘許氏의 진실한 功臣이니 徐鉉의 父子가 문자에 의거하여 해석한 것과는 같지 않으니 그 全稿가 출간된다면 洛陽의 종이값이 오를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하지 않음이 없었다.²⁷⁾

위의 기록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翼徵」이 당시 중국 설문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사실은 짐작할 수

있겠다. 吳大澄이 「古補」를 완성한 것은 1883년이니 「翼徵」을 본지 10여년 이후의 일이다.

潘祖蔭이 쓴 「說文古籀補徐」에 의하면 吳大澄이 「翼徵」을 보았을 당시에 그도 鍾鼎文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몇몇 학자들과 어울려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하던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²⁸⁾ 그리고 吳大澄도 자신이 30여년 간에 걸쳐 청동기 유물을 수집하여 연구를 지속했다고 말하였다.²⁹⁾ 따라서 吳大澄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古文에 대해 연구하던 중 「翼徵」을 보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古補」의 찬술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5.1 段玉裁의 「說文解字注」

5.1.1 「說文解字注」의 構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說文解字注」(이하 「說注」로 약칭)는 「說文」을 注釋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體裁나 構成이 「說文」과 같을 수밖에 없다. 다만 注釋하는 과정에서 분량이 늘어 「說文」의 각편을 上·下로 나누고 뒤에 부록이 붙어 있어 모두 32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四部刊要」의 經部, 小學類에 보이는 「說注」를 중심으로 체재와 구성을 살펴보면, 근대의 저술답게 대단히 치밀하게 짜여져 있으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翼徵」의 간략한 구

26) 金允植, 雲養集, 說文翼徵序.

27) 潘祖蔭, 「說文古籀補叙」.

28) 潘祖蔭, 「說文古籀補叙」.

29) 吳大澄, 「說文古籀補序」.

성 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表紙 뒤에 '經韻樓藏版'이라고 판본의 출처가 명시되어 있다. 다음에 유명한 王念孫의 「說文解字注序」가 있고 그 다음에 分卷目錄이 있는데 32卷의 순서를 적어 놓았다. 그리고 제1권부터 28권까지 본격적인 註釋이 전개된다. 「說文」의 제15권에는 許慎의 後序가 있으며 540개의 부수를 순서대로 各卷別로 나열해 놓은 뒤 다시 허신의 叙가 있는데, 段玉裁는 이것에 대해서도 주석을 달아 놓았다. 30권 말미에 嘉慶20년(1815, 乙亥)5월에 간행되었음을 명기하였고, 이어서 江沅의 「說文解字注後序」와 陳煥의 「跋文」, 盧文弨의 「說文解字讀序」가 첨부되어 있다. 이 뒤에 「說文部目分韻」이 수록되어 있다. 「說注」가 「說文」과 다른 것은 제31, 32권에 있는 「六書音均表」이다. 이것은 古韻을 詩經類·群經類 및 形聲便芳을 귀납하여 17부로 확정된 업적인데 段玉裁의 스승인 戴震이 직접 序文을 썼으며, 중국 성운학사상 매우 중요한 업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六書音均表」는 다섯권으로 되어 있는데: 「今韻古分十七部表」, 「古十部諧聲表」는 다섯권으로 되어 있는데: 「今韻古分十七部表」, 「古十七部諧聲表」, 「古十七部合用類分表」, 「詩經韻分十七部表」, 「群經韻分十七部表」등으로 모두 52, 325자가 수록되어 있다.

5.1.2 「說文解字注」의 文字解說 方式

段玉裁는 許慎의 해설을 심도있게 해설함으로써 「說注」를 완성시켰다. 물론 독자적인 해설을 시도하여 許慎의 해설을 반박한 경우도 없지 않다. 許慎이 해설한 문자의 근본 뜻을

정확히 알고 난 후 그것을 다시 부연 설명했기 때문에 그가 許慎의 정통을 계승했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많은 異籍을 참고하여 許慎의 원작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해설을 가함으로써 허신의 원래 뜻을 살리는 것은 물론 자신의 문자학적 학문세계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점이 「說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殷玉裁의 주석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理字에 대한 해설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문자해설방식을 알아 보고자 한다.

許慎이 理字를 '옥을 다듬는 것이다. 玉을 따르며 里의 소리를 갖는다(治玉也 從玉里聲 良止切)'이라고 간단히 설명하였다. '從玉里聲 良止切'에 대하여 殷玉裁는 아무런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 다만 一部라고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一部란 자신이 정리해 놓은 「六書音韻表二」에 실려 있는 「古十七部諧聲表」의 분류에 의한 第一부에 里聲이 실려 있다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治玉也에 대한 해석이다.

戰國裁에 의하면 鄭나라 사람들은 다듬지 않은 玉을 璞이라고 한다. 理는 나누어 쪼갬다는 뜻이다. 玉이 비록 견고하지만 다듬을 때 그 결을 따라 한다면 모양을 이루기가 어렵지 않으므로 理라고 한다.

무릇 天下의 모든 事物은 반드시 그 情을 미루어서 섭섭함이 없는 다음에야 곧 편안해지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 天理라 하고 善治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확장된 의미이다. 戴震의 「孟子字義疏證」에 말하기를 '理는 잘 살펴 조짐이 있으면 반드시 구별하여 나누는 것의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이런 까닭에 分理라고

하는 것이니 물건의 본질에 있어서 肌理(살결)라 하고 理(살결)라 하며 文理라고 하는 것이다. 나눌 수 있으면 조목이 생겨 문란해지지 않으므로 條理라고 하는 것이다.

樂記의 鄭注에 말하기를 ‘理라는 것은 나누는 것이다’라고 하고 許慎이 말하기를 ‘나누는 이치가 별다른 것을 알다’라고 했다. 옛사람들이 天理라 말한 것은 무엇을 이르는 것인가? 理라고 하는 것은 情을 잃지 않는 것이니 情을 얻지 못하면서 理를 얻는 자가 있지 않다. 天理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分理를 말하는 것이니, 自然의 分理라는 것은 나의 情을 다른 사람의 情과 연결하여 그 평정함을 얻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許慎의 간략한 해설과 비교해 볼 때 殷玉裁는 철학적이면서도 구체적인 典據를 들어 자세히 해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지 玉을 다듬는 것이 理라는 해설을 바탕으로 이처럼 깊이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說注」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된다. 사실, 殷玉裁는 天理라는 중요한 철학적 개념에도 사용되는 理字를 간략하게 설명한 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 따라서 「戰國策」·「樂記」 등의 전적과 여러 사람의 說을 인용하면서 보충 설명하였고 한편으로는 情의 개념까지 이용하여 해설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說注」에 일관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殷玉裁는 가끔씩 자신의 해석을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許慎의 해설을 자의적으로 수정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햇빛이 땅에 비친다는 뜻의 入과 공간을 나타내는 二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白字는 古文에 의하면

라 표기되었는데 殷玉裁가 篆文을 바꾸어 로 표기한 것이라든지, 衣字의 古文인 을 로 바꾼 것 등은 논리의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³⁰⁾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殷玉裁가 「說注」를 저술하면서 字義 분석에는 가장 소홀했기 때문이었다.³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殷玉裁는 許慎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을 계승하여 깊이 있는 해설을 추가시켰다고 할 수 있다.

5.1.3 「說文解字翼徵」과 「說文解字注」

「說注」의 문자해설이 「翼徵」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殷玉裁는 許慎의 해설을 보충하고 주석하는데 주력한 관계로 鍾鼎文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두 저서의 문자해설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앞에서 설명한 몇 개의 문자에 대한 해설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발견된다.

5.1.3.1 祖字의 경우

이 글자는 朴瑄壽가 강조하여 해설한 글자 중의 하나로 절대적 존경의 대상인 祖가 어조사인 且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朴瑄壽의 결론이었다. 그러나 殷玉裁는 許慎이 祖는 始廟의 뜻이라고 해석한 것을 부연 설명하였을 뿐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30) 殷玉裁, 說文解字注.

31) 陸宗達, 說文解字總論, 金權譯, 大邱: 啓明大學校出版部, 1986, pp. 94-95.

32) 陸宗達, 說文解字總論, 金權譯, 大邱: 啓明大學校出版部, 1986, p. 57.

않았다.

始는 두 개의 뜻을 겸하고 있으니, 新廟도 始요 遠廟도 始이다. 그러므로 附祭와 祫祭 모두 祖라 하는 것이다. 釋詁에 祖는 始라고 했고 詩經 毛傳에 祖는 爲라고 했으니 모두 확장된 뜻이니, 마치 처음에는 옷을 만드는 것이 始였는데 확장되어 무릇 始가 된것과 같다.³³⁾

이처럼 段玉裁는 「說文」주석에 주력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鍾鼎文에 祖가 祖로 쓰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5.1.3.2 白과 帛의 경우

앞서 설명했듯이 朴瑄壽가 金文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원래 帛은 白이었고 白은 伯으로 사용되던 글자라고 단언하였지만 段玉裁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許慎이 帛을 繪이라고 해설한 것에 대해 聘禮 大宗伯篇의 注를 인용하여 요즈음의 푸른색 비단(帛今之翠色繪)이라고 주석했다. 白字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5.1.3.3 王字의 경우

특히 王字에 대한 許慎의 해석은 봉건제도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은 바이지만 段玉裁는 許慎의 해설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古文의 王字는 王로 되어 있어 강력한 지배력을 상징하는 도끼를 들고 있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러나 단옥재는 허신의 해설을 설명하는 데에만 그칠 뿐, 다른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說注」는 說文學史上 중요한 저서로 인정되고 가치 또한

지대한 것이지만 적어도 문자해설 방식에 관한 한 「翼徵」과는 다른 방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그 중 하나는 朴瑄壽가 「說注」같은名著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방법론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 의미있다고 하겠다.

5.2 吳大澄의 「說文古籀補」

5.2.1 「說文古籀補」의 構成

「古補」도 說文學 관련저술이므로 기본적으로 說文의 구성을 따르고 있으며, 문자 배열의 순서도 동일하다.³⁴⁾ 卷頭에 陳介祺가 지은 「說文古籀補叙」와 潘祖蔭이 지은 「叙」, 그리고 吳大澄의 「自序」가 있다. 그리고는 12항목의 범례가 있고 이어 제1권이 시작된다. 모두 1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이하게 부록이 있다.

각권에는 첫머리에 그 권에서 해설하는 문자와 중문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문자해설의 경우, 해당 문자의 고문을 金文에 의거하여 수록해 놓았는데, 상변위에 원래의 글자를 쓰고 그 밑에 자신이 찾아 낸 고문들을 수록해 놓았다. 그리고 간혹 몇몇 주요 글자들에 대해 해설을 시도했으며, 각 문자 밑에는 그 문자를 발견해 낸 유물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음으로써 吳大澄도 고증에 충실했던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吳大澄은 이를 철저히 지켜 같은 글자라도 여러개의 古文이 있을 경우에는

33) 段玉裁 說文解字注 卷1.

34) 「說文」에 수록된 문자 전체에 대해 고찰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배열 순서는 「說文」과 동일하다.

각 글자마다 출전을 밝혀 놓았다. 예를 들면 天字의 경우 吳大澄이 제시한 고문은 모두 5자인데 각 글자 밑에 출전이 적혀 있다. 이것은 朴瑄壽가 天字의 徵字로 4자를 제시한 것보다 한글자가 많고, 朴瑄壽가 여러 유물에서 보인다는 이유로 출전을 명시하지 않은 것과 비교된다. 참고로 「古補」에서 제시한 고문의 숫자를 각권별로 살펴보면 <표 2>과 같다.

<표 2> 「說文古籀補」의 卷別 古文

卷次	古文數
1	144
2	368
3	481
4	205
5	384
6	357
7	429
8	249
9	212
10	242
11	218
12	451
13	270
14	765
總	4,775

吳大澄이 제시한 고문이 4,775자라는 사실은 일단 객관적인 수치 비교에서 朴瑄壽가 徵한 글자수인 1,351보다 많다. 이는 「古補」가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문을 발굴하여 증거로 내세웠음을 말한다. 그러나 朴

瑄壽는 조선에 살았다는 지리적 이유로 중국의 학자들보다 많은 유물을 대할 기회가 적었으며, 이것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5.2.2 「說文古籀補」의 文字解說 方式

「古補」는 古文을 찾아 증거로 삼음으로써 許慎의 해설을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간혹 독자적인 문자해설을 시도하여 주목된다. 이때의 解說은 許慎이나 段玉裁와 다른 것은 물론 朴瑄壽의 해설과도 일치하지 않아 비교 고찰할 필요성을 갖는다.

5.2.2.1 天字의 경우

吳大澄이 제시한 天字의 고문은 𠄎·𠄎·天·𠄎·𠄎 등이다. 그리고 許慎이 天을 顛이라고 해설한 것에 비해 吳大澄은 '사람이 이고 있는 것이다. 천체는 둥글게 생겼으므로 ●을 따른다. 許氏가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사람도 크므로 大는 사람의 형태를 상형한 것이라고 말했다⁵⁶⁾' 라고하여 天字의 형성에 대한 해설을 전개했다. 이것은 朴瑄壽가 종정문의 형태에 관심을 두어 天字의 大가 원래 太였음을 증명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5.2.2.2 祖字의 경우

朴瑄壽가 祖字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와 유학자의 전형적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許慎의 해설을 극력 수정하고자 했던 것과는 달리 吳大澄은 다른 해설 없이 고문 𠄎자만을 제시해 놓았으며 아래에 '齊子仲姜彝'라고 출처를 밝혀 놓았다. 이것은 朴瑄壽가 밝힌 유물명이 '齊侯鐘'이라는 사실과도 차이가 있으며 朴瑄

壽가 제시한 고문 冪과도 차이가 있어 매우 주목된다.

5.2.2.3 王字의 경우

王子에 대한 해설이 許慎과 段玉裁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음을 위에서 살펴 보았다. 그러나 吳大澂은 이들과는 또 다른 해설을 하여 의미있다. 吳大澂이 제시한 고문은 冪로 朴瑄壽의 그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해설은 일치하지 않는다.

크고 성한 것이다. 二와 丿를 따르는데 丿는 옛날의 火字이다. 땅위에 불이 있으면 그 기운이 성한 것이다. 불이 성한 것도 王이라 하고 德이 성한 것도 王이라 한다.³⁵⁾

위의 해설을 보면 같은 글자를 대상으로 학자들 사이에 많은 관점의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吳大澂은 冪을 火로 해석하였으나 다른 학자들은 도끼류의 무기로 해설하여 피 지배자를 다스리는 지배자의 통치권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니³⁶⁾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것이다.

5.2.2.4 應字의 경우

이 글자의 해설은 朴瑄壽와 吳大澂이 갖고 있는 관점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德字가 冪과 應을 따르며 應자가 應와 應을 따른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應의 해석이 다르다. 吳大澂은 應이 고대의 相字라고 했으나 朴瑄壽는 이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應이 省字임을 주장하였음은 앞

에서도 밝힌 바 있다.

5.2.2.5 白과 帛의 경우

위의 德字의 해설과는 달리 白과 帛의 해설에서는 두 저술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 朴瑄壽의 주장에 의하면 白은 원래 伯자이고 帛이 白字임을 알 수 있는데 吳大澂이 주장한 것도 朴瑄壽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나 「翼徵」에서 帛字를 발견한 유물이 帛女鬲과 石鼓인데 비하여 「古補」에서는 辛宮鼎으로 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5.2.3 「說文解字翼徵」과 「說文古籀補」

「古補」와 「翼徵」 사이에서는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어 비교 고찰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먼저 두 저술은 저술에서의 기본적 자세가 약간 다르다. 朴瑄壽는 「說文」의 위대성을 충분히 인정하였으며 「說文」의 오류를 발전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였으나, 吳大澂의 경우는 「說文」의 위대성을 인정하는 것은 같지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함에 충실할 뿐 자의적인 해석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 방식이었다.³⁷⁾ 따라서 朴瑄壽가 독자적이고 새로운 문자 해설에 주력한 吳大澂은 많은 유물을 연구하여 해당 문자의 古文을 다양하게 제시해 놓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실제 문자해설에 있어

35) 吳大澂. 說文古籀補.

36) 吳大澂. 「說文古籀補序」.

37) 李敦柱. 漢字學總論. 서울. 博英社: 1992. p.188.

38) 吳大澂. 說文古籀補序.

서 간혹 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부분에서 서로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

두 저술이 갖는 공통점은 許慎의 한계가 발생한 결정적 이유인 金文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둘은 許慎이 고문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해설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동일하게 청동기 유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古文을 최대한 수집하여 그것으로 자신의 문자해설에 있어서의 증거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 학문연구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6. 結 論

지금까지 조선조 말의 고증학자 중의 한사람인 溫齊 朴瑄壽가 저술한 문자학 관련 저서인 『說文解字翼徵』에 대하여 저자 및 저작배경, 체재와 구성, 문자해설 방식 등을 고찰하였다. 앞서의 논의를 요약·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說文解字翼徵』의 著者인 溫齋 朴瑄壽는 조선 후기의 학자로서 燕巖 朴趾源이 그의 조부이며 조선 후기의 개화파의 정신적 지주로 일컬어지는 朴珪壽가 그의 형이다. 朴瑄壽는 이러한 실학적인 배경 아래에서 평생 동안 연구에 몰두하였다. 『說文解字翼徵』은 그의 오랜 文字學 연구의 결실이었다. 『說文解字翼徵』의 저술에 있어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인물은 翠堂 金晩植이다. 金晩植은 朴瑄壽의 5촌 조카이며, 저술의
2. 『說文解字翼徵』이 저작된 동기는 朴瑄壽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說文解字』를 보다 훌륭한 저서로 완성시키기 위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3. 『說文解字翼徵』은 문자해설 순서에 있어서 14卷 540部로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만 설문해자에 수록된 9,353字 가운데 金文 등에서 발견된 1,351字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說文解字翼徵』과 『說文解字』는 문자해설 방식 및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두 저술이 고찰의 대상으로 삼은 문자에 기인한다. 許慎은 小篆을 대상으로 삼은 반면 朴瑄壽는 小篆 이전의 문자인 古代漢字를 대상으로 삼아 許慎의 해설의 오류를 수정하여 발전적으로 보완할 수 있었다.
4. 설문학 분야의 저술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段玉裁의 『說文解字注』는 許慎의 해설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그것을 주석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므로 朴瑄壽의 문자해설과는 차이가 있다. 許慎과 마찬가지로 段玉裁도 小篆 이전의 古代漢字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문학자 중 고대 한자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갖고 주목할 만한 저술을 이룩해 놓은 사람은 吳大澂이고, 그의 저술은 『說文古籀

補」이다. 여러 면에서 吳大澄과 朴瑄壽는 서로 비교되며 둘 사이의 저술도 비교된다. 그러나 吳大澄은 「說文解字」의 해설을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기 보다 「說文解字」에서 해설한 문자들 중에서 확인할 수 있는 古代漢字를 모두 수록해 놓음으로써 저술을 완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므로 상대적으로 각각의 문자에 대하여 독자적인 해설을 시도하는 데는 미흡했다. 그러나 朴瑄壽는 비록 근거로 제시한 문자의 수가 吳大澄의 그것 보다는 적지만 신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연구하여 독자적인 문자해설 방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설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적인 면모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朴瑄壽는 許愼같은 大學者가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 殷周代에 제작된 청동기 유물에 새겨진 古代漢字를 미처 볼 수 없었으며 小篆만을 대상으로 삼아 문자를 해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金文을 집중적으로 상고하면 許愼의 오류를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金文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자해설을 시도하여 결국 성공했던 것이다. 그리고 金文에 나타나지 않는 글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견해에 확신이 서 있을 경우에는 유사한 문자나 典籍 등의 자료를 인용하여 해설을 展開하였다.